

“심장 터질 것”...예측불허 스릴러 ‘콜’



배우 김성령(왼쪽부터), 박신혜, 전종서, 이벨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콜’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화 ‘콜’은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두 여자가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배우 박신혜 전종서 김성령 이벨이 전화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며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스릴러를 선사한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CGV에서 영화 ‘콜’ (감독 이충현) 제작보고회가 열려 배우 박신혜, 전종서, 김성령, 이벨, 이충현 감독이 참석했다.

‘콜’은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두 여자가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로 박신혜 전종서가 출연한다.

이 감독은 이날 “네 명의 배우님과 함께 해서 영광이다”라며 “하나의 영화 안에 여러 개 영화가 있다고 느껴질 만큼 인물들 감정이 변화무쌍하게 변화한다. 그거에 맞춰서 의상, 미술, 공간, 촬영 모든 분야를 총동원해서 이야기가 결말까지 갈 때 어떻게 결말이 날까, 예측불가능하게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했다”고 밝혔다.

박신혜는 2019년 현재에 살고 있고 과거를 바꾸려는 여자 서연역을 맡았다. 그는 “정말 강렬하고 과거를 뒤바꾸기 위한 대가를 치열하게 치루는 인물이다. 저도 연기하면서 제가 모르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촬영하면서도 기대가 됐던 현장이었다. 서연이가 처음 영숙을 만난 호기심 단계부터, 처음 영숙이에게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본인의 엄마와 모든 상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서연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가 작품에서 처음으로 쇼트컷트를 했는데 아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서는 1999년 과거에 살고 있으며 미래를 바꾸려는 여자 영숙 역을 맡았다. 이에 대해 “영숙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항상 감정이 과열되어 있고 공격적이고 과격하기도 하다. 감독님과 사전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 게 도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두 여자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되며 벌어지는 이야기

이 됐다. 촬영할 때는 많은 대화 없이 작은 사인들로 수월하게 촬영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또 영숙과 닮은 점으로 “끈질기고 광기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꽃하면 되게 오래가는 데 그런 게 닮았다”고 했다.

또한 서연을 지키려는 서연 엄마 역의 김성령으로 분했다. 김성령은 “제가 실제로 두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영화에서 모성애가 드러난 것 같다. 저는 하는 역할마다 제 스토리가 스포일러가 된다. 거친 액션이라기보단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몸부림이 있다”며 “박신혜와 ‘상속자들’ ‘미남이시네요’에 이어 세 번째인데 처음 딸이다. 작품을 같이 해서라기보단 늘 신혜는 딸 같다”고 말했다.

딸 영숙의 운명을 바꾸려는 신엄마 역에는 이벨이 나선다. 그는 “저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다. 정상적이 아니고 이상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과하게 말하기도 했는데 조금 줄였다”며 “주요 인물 네 명이 여자인 것에 반했다. 시간을 왔다갔다 하면서 과거에서 했던 말, 현재에서 전해준 말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재밌었다. 사실 제가 많이 안 나오는데 다 스포일러가 된다”고 덧붙여 궁금증을 높였다.

전화를 통해 미스터리한 스토리가 전개되다 보니, 배우들은 서로 촬영이 없는 날에도 연기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한다. 박신혜는 “전화로 서로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서 배우는 정말 만나지는 신이 없고 전화로 이뤄졌다. 그래서 촬영 없어도 중요한 촬영일 경우엔 서로 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해 대본도 읽어주곤 했다”고 밝혔다.

전종서도 “제가 초반에 어떤 에너지로 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됐다. 그래서 전 그냥 막 달렸던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전화 때문에 촬영장 방문해서 연기를 볼 수 있었는데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서연과 영숙의 에너지

가 많이 비례했던 것 같다”며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공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성령은 전종서의 에너지에 대해 칭찬하기도 그는 “현장에서는 전혀 떨지 않았다. 누구보다 대범했고, 저 친구 처음 ‘바닝’에서 보고 처음 봤는데 약간 굉장히 반항적인 이미지고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성실했다. 성실하게 안 보였는데 성실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했고, 박신혜는 “(전종서는) 정말 사랑스럽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이 감독은 “톤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전형적이지 않고 영화 톤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색보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쏘아야 겠다고 생각해서 영국에 가서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감독은 “더 콜라’라는 원작이 있다. 원작을 먼저 본 것보다는 제작사 용필름에서 개발한 초고가 있었다. 영화가 정말 예측 불허했고, 장르적으로도 그리고 이야기가 전복되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하고 싶고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다”며 “주로 이제 여성 배우님들 네 분이 나오셔서 여성들이 이끌어가는 장르 영화로서 힘도 있고 하드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는 형태라고 하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있을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박신혜는 “읽으면 읽을수록 상상이 되는 책이 있고, 내가 상상한 그림과 현장에서 그려진 그림이 과연 어떤 게 맞고, 다를까 그러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너무 하고 싶어서 심장이 뛰었다”며 “보시는 분들도 심박수가 올라가서 내 심장이 터지는 것 아닐까, 잊갈리는 운명들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박진감이 넘칠 것 같다”고 ‘콜’의 매력을 밝혔다.

한편 ‘콜’은 3월 개봉 예정이다. 뉴스

“봉준호가 직접 골랐다” ‘기생충’ 흑백 미공개 스틸 11종

영화 ‘기생충’의 흑백판 개봉을 앞두고 봉준호 감독이 직접 골라낸 ‘디렉터스 초이스 미공개 스틸 11종’이 공개됐다

17일 공개된 스틸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직접 선택한 미공개 사진이다.

기생충의 핵심 배경인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부잣집과 오래되고 낡은 기택네 반지하 집을 뚜렷한 명암의 대비로 담아낸 기택과 기정의 스틸은 다른 배경만큼이나 극과 극인 두 가족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기생충: 흑백판’만의 강렬함을 전한다. 색다른 ‘기생충’을 만날 수 있는 ‘기생충: 흑백판’은 오는 2월 26일 개봉 예정이다.



‘사랑의 불시착’ 현빈·손예진이 새로 쓴 tvN의 역사

‘도깨비’ 제치고 tvN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 기록



지난 16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영한 tvN 주말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불시착’ (극본 박지은/ 연출 이정효)이 역대 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방송 내내 신드롬급 인기를 자랑했던 ‘사랑의 불시착’은 마지막까지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등 시청자들에게 끝까지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방송된 ‘사랑의 불시착’ 최종회는 전국 유료 가구 기준 21.7%(이하 동일 기준)의 시청률을 나타냈다. 이는 ‘사랑의 불시착’의 자체 최고 시청률임과 동시에 ‘도깨비’ (20.5%), ‘응답하라1988’ (19.6%), ‘미스터션샤인’ (18.1%) 등을 제친 tvN 드라마 시청률 역대 1위 기록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14일 처음 방송을 시작한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와 그녀를 숨기고 지카타 사랑하게 되는 특급 장교 리정혁(현빈 분)의 절대 극비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사랑의 불시착’은 MBC ‘내조의 여왕’과 ‘역전의 여왕’, SBS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KBS 2TV ‘프로듀사’ 등 내놓는 작품마다 흥행을 지속해 온 박지은 작가의 신작이라는 점과 배우 현빈 손예진이 영화 ‘협상’ 이후 다시 연기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화제성은 곧바로 시청률로 이어졌다. ‘사랑의 불시착’은 1회부터 6.1% 시청률을 나타내더니 줄곧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려오며,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랑의 불시착’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역시 현빈 손예진이 그려내는 설렘 가득한 로맨스 호흡이었다.

두 사람은 극 중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진 남한과 북한에서 사랑을 키워가며 절절한 멜로를 선보였고, 최종회에서는 서로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게 됐지만 스위스에서 재회하는 운명적 사랑의 힘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서단(서지혜 분)을 두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구승준(김정현 분)의 애절한 사랑도 극의 몰입도를 더욱 높이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여기에 북한에서의 삶으로 돌아간 5중대 대원들과 사택 마을의 주부들 역시 윤세리와는 추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안방극장을 끝까지 훈훈함으로 채웠다.

‘사랑의 불시착’은 마지막까지 완성도 높은 극본과 연출,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지며 시청률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호평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편 ‘사랑의 불시착’의 후속으로는 김태희가 약 5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하이바이, 마마!’가 오는 22일 처음 방송된다. 뉴스